

향토자원 활용 농식품산업 강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임실군,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임실군이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임실군은 2023년 전북도 공모사업인 '특화품목 6차산업화사업'에 선정되어 복숭아와 매실 등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 중이다.

지난 3월 25일과 28일에는 임실군 과수농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원물 생산을 위해 농약 및 잔류성 화학물질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과수(복숭아, 매실) 및 딸기 농가 130여명을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재배환경, 과수별 적합한 농약 선택 및 사용량, 농약 관리 방법을 집중 교육했다.

'특화품목 6차산업화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사업비 20억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참여주체간 네트워크 형성, 로컬상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지역브랜드화, 로컬상품 융복합산업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 중이다.

참여주체는 복숭아공선출하회와 매실작목반,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임실군이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따당영농조합법인 등이다.

복숭아, 매실에 대한 기능성 스크리닝을 바탕으로 피부장벽 개선에 효과적인 복숭아와 호흡기 예방에 좋은 매실 등 현재까지 복숭아·매실 와인, 각각각 스낵(12%), 드라이(15%) 버전으로 개발했다.

국내외 박람회 및 관측행사 등에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였을 때 '과실의 달콤한 향과 맛이 좋다', '직관적인 네이밍을 통해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연상할 수 있어 좋다', '버전이 두 가지여서 기호, 함께하는 음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좋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를 위해 주류

면허를 취득하여 내년부터는 기존 개발한 와인과 2025년 새로 개발하는 복숭아 증류주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개발한 임실 딸기·복숭아·매실 청 등 아이실 시리즈는 2024년 HACCP 인증 취득과 함께 몽골과 독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지역 향토 자원을 활용한 특화품목 개발과 안전한 원물 생산을 통한 과수산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식품산업의 기반 확충과 함께 과수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사회 건강 증진 최선 다할 것”

순창군 보건의료원 윤기곤 신임 원장 취임

순창군은 지난날 31일자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신임 원장에 윤기곤 박사(67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기곤 신임 원장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원광대학교에

서 안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부교수를 역임한 그는 전북 부안군에서 안과의를 개원해 28년 동안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으며 학술적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추었다.



윤기곤 원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로서 더욱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농기계임대사업소 6월까지 토요일도 운영

임실군이 봄철 영농철을 맞아 6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22종 81여대의 농기계를 평일과 동일하게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파종기 등 12종 46대의 임대 농기계를 추가 확보하여 농업인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여 농업인의 이용 부담을 줄



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잔가지 파쇄기의 무료 임대 및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임실군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를 올해 말까

지 50% 감면 연장한다.

임대 농업기계는 임실군 농업인 및 임실군에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감면 적용 대상이다.

군은 지난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업기계화 촉진 유공 지자체로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심 민 군수는 "건축재정 및 교환을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분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 모색하여 임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총 65억원 국도비 확보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공간재구조화사업'에 따른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등 총 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에 군비를 추가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거와 산업, 융복합산업,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정비하고 육성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현장평가와 대면평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구립면 소재지를 '농촌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해 두물, 복분자 등 지역 특산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순창 북서부권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산물 가공·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체험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재배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구립면 소재지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유학생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100억 규모의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은 순창 북서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기회"라며, "구립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공공도서관, 세계 책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운영

남원시공공도서관에서는 '세계의 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림책 원화 전시(4월 12일~23일) △자가대출반납기 영수증 추첨, 2배로 도서 대출, 연체 지우개(4월 12일~23일)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사파리 매직쇼 공연(4월 20일) △내일을 위한 마음 챙김 도서 전시 △무지개 스포츠 그림책 원화전시 △자가대출반납기 영수증 추첨, 연체 지우개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가대출반납기 영수증 추첨, 2배로 도서 대출, 연체 지우개(4월 12일~23일)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파리 매직쇼 공연(4월 20일) △내일을 위한 마음 챙김 도서 전시 △무지개 스포츠 그림책 원화전시 △자가대출반납기 영수증 추첨, 연체 지우개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방역소독 실시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경로당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11개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소독은 각종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해충 방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획되었으며, 1회성 소독·방역이 아닌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소독을 진행한 치유의 오종하



대표는 금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 가게'로 정기적인 기부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봄철 특별 안전대책 추진

순창소방서는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라 산악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한 특별 안전대책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2,015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조난, 실족·추락, 탈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순창소방서는 주요 등산로의 산악위치 표지판 및 구급함을 정비하고,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강천산과 용굴산 등 주요 등산로에 주말 및 공휴일 동안 구급차를 전진 배치해 등산객의 건강 체크를 지원하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준희 현장대응단장은 "안전한 등산을 위해 개인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충분한 스트레칭과 적절한 복장 준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임실소방서가 지난날 31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은 사고 유형, 단계별 현장 지휘관의 작전 지휘절차와 통제단 각 부·반별 임무 숙지 등 신속한 통제단 가동과 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산불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산악대에 의한 인명구조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체계 가동 △상환환단회의와 언론브리핑 △통제단 임무별 역할 점검 및 훈련메시지 처리능력 향상 등이다.

김상곤 서장은 "지속적인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